



▲여수 원도심 일대 전경

## 여수 원도심 살리기 민·관 힘모은다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등으로 한해 관광객 1000만 시대를 연 여수시가 원도심 개발에 나선다. 여수시는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극심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원도심 공동화 가속화=여수시 만덕동 여수 세계 박람회장 일대는 과거 수산업용 주요 기반으로 한 지역의 역사·문화·경제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지난 1990년대부터 추진된 정부의 수자원 보호 정책과 어선 감축, 3려(麗)통합, 신도심 개발 등이 맞물리면서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과 산업기반이 무너지면서 원도심 침체는 심각하다. 실제 이순신 광장과 돌산대교, 해양공원 등이 위치한 중앙동, 만덕동, 한려동 등 10개 동은 올 9월말 기준 6만792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998년 3려 통합(여수시·여천시·여천군) 이후 10만9201명을 기록했던 원도심 인구가 4만명 넘게 많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여수시 인구감소율의 3배가 훨씬 넘는 35.9%의 높은 수치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여수시 65세 이상 고령 인구 평균 분포도가 13.4%인데, 원도심은 17.8%를 보이고 있다.

또 사업체와 종사자 증가율이 시는 1.6%와 18.9%를 기록했지만 원도심은 오히려 24.9%(사업체)와 23.6%(종사자)로 감소했다.

3려통합 이후 4만여명 빠져나가 사업체 25% 줄며 공동화 심각

단순 정비 아닌 주민주도형 재생 전문가 초청 아카데미 등 교육도시, 도시재생 실행안 마련 본격화

다. 여기에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도 전체 88.6%를 차지하고, 공가 654채와 빈집포 107채 등 주거환경도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여수시 도시재생 본격화=여수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 박준걸 도시재생과장은 "과거 문화·경제·역사의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며 "단순한 정비사업 수준에서 벗어나 여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중점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기존의 재개발사업 등 하드웨어 강화사업이 실질적인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내지 못한 점에 주목하고 세계적 선진사례인 주민 주도형 재생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단순한 도시정비사업 경우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 사업에 그치면서 황폐화된 원도심을 회복시키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들의 자긍심 회복을 위한 시민주도형 '장소중심적 재생' ▲문화·역사 등 인적·물적 자원을 주민이 직접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재생' ▲상권 활성화를 통한 '원도심 경쟁력 강화 재생'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지역간 불균형해소와 소외계층을 위한 재생' ▲문화·관광 활성화 등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로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강화 재생' 등 시민주도형 도시재생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민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동별로 결성된 도시재생지원 위원회 간담회와 아카데미, 시민대학 운영하고 있다.

여수시 김문환 도시정비팀장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와 실질적인 현장 전문가들을 초빙해 시민 아카데미와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의 목적과 사업의 이해, 구체적인 사업 실행에 필요한 역량이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 성미산 마을 공동체 전문가를 초빙한 아카데미 개최와 이달 말부터 5주간 열리는 시민대학을 통해 지역 도시재생 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여수가 가진 훌륭한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사람이 잘 조화될 수 있는 도시재생 실행안 마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주춤했던 여수 관광 회복세로

지난달 96만명 찾아...박람회장·오동도 순

'세월호' 참사 등의 여파로 주춤했던 여수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7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여수 관광지를 찾은 관광객 수는 96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 늘어난 수치다.

여수를 방문한 관광객 수는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지난 6월까지 전년도에 비해 72만8000명 정도 대폭 감소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박람회장 등 여수 관광지를 꾸준히 다시 찾으면서 최근까지 회복세를 보여왔다.

관광객이 10월 기준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세계 박람회장으로 27만1000명이 방문했다. 이어 오동도 17만8000명, 아쿠아플라넷 9만4000명, 해양수산과학관 7만3000명, 금오도 3만6000명, 해양레일바이크가 3만1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도 골프장이 '한국 10대 뉴스'에 선정되는 등 유명세를 타면서 지난해에 비해 38%가 늘었고, 세계 박람회장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마련해 47% 늘었다. 아쿠아플라넷과 해양레일바이크, 국가산단 투어 등도 관광객들의 높은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이노철 해양관광수산국장은 "일년내내 주말·연휴도 없이 관광종합 상황실을 운영, 관광객을 위한 각종 서비스 지원 등으로 관광객 불편 해소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국제 해양관광 중심도시 여수 조성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주철현 시장 '국제평화언론대상' 최우수상

주철현 여수시장이 지난 14일(사)한국언론사협회 주최로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2014 국제평화언론대상' 시상식에서 창조행정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주 시장은 지난 2002년 대검찰청 공안2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의 객관적 기준을 확립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03년 법무부 법무심의관 재직시 '호주제 폐지' 법안을 발의해 양성평등의 대법력을 가져온 점과 2009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재직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제도'를 최초 시행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주 시장은 지난 7월1일 민선 6기 여수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사람중심의 참여와 소통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이 참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국제평화언론대상은 국제평화 및 한반도 평화와 언론발전 등의 분야에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지난해 제1회 대상에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각각 대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연말연시 모임·피로연·돌 회갑 등

# 등대바다

(주) 해진수산 (주) 창진수산 전국 유통 직영점!

등대바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938-2 (062)682-9688 정일영 010-2604-7223  
 해진수산 전남 완도군 신지면 동고리 (061)552-7223  
 창진수산 전남 완도군 고금면 내동리 (061)554-4631

대량 저가 판매 전복 연말 선물 Set

마재우체국 건너편 (062)682-9688 ※ 300석 완비, 주차장 완비

30년 전통의 -

# 민우액자표구화랑

명화 캔버스 액자, 표구, 각종액자 제작, 그림판매

작가의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허 경 식

목포시 산정동 112-1 (백년로 4거리 장약국 건너편)  
 T (061)274-1481  
 H 010-2632-1481